

W\_F\_724

## 저승사자가 잡은 수만이

2019년 5월 1일, 서귀포시 영천동(상효동) 서상효마을회관, 오창순 조사.

제보자1: 양유정(여, 1938년생, 서귀포시 상효동)

-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생으로 25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상효동에서 살고 있다.

제보자2: 김춘옥(여, 1939년생, 서귀포시 상효동)

- 서귀포시 토풍동 출생으로 25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상효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저승사자가 와도 잡을 수 없는 사만이가 숯을 씻는 것을 보고 자기는 4만 3천년을 살아도 숯을 씻어서 희어진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자 저승사자가 잡아갔다.

[제보자1] 옛날 그 사자님이 잡으려 오난 잡을 수가 엇이난 수만삼천 년을 못 잡으니깐 아이 웃닥 어른 웃닥 하르방 웃닥 혈 거 아니라. 수만삼천이민 난 지금 세렌 해도 못 세여.

경현디 그추룩 허난 잡단 잡단 버치난 숯을 물에 놓안 숯을 싯없이민 잡을 수가 잇젠 허난 물에 숯 앗다네 물에 놓안에 손으로 영영 햅이난 수만이가 넘 어가단 건 무시거 험넨 허나네. 지금??지 저승사자로 헤네 잡아오렌 헷인디 잡을 수가 엇우덴. 수만삼천 년을 살아도 숯 헌덴 헌 말은 들어본 디가 엇덴. 숯 헌덴 헌 말은 들어본 디가 엇인 말이엔 허나네. 게민 경허넨 헤네 그 사람 잡아가나네 그때 그루후제 끝은 모르크라.

[조사자] 게난 그게 저 고사 무시거?

[제보자2] 경 허난 못 잡아 사름으로 안 비취니까.

[제보자1] 사름이 컷다 족앗다 할망 웃다 하르방 웃다.

[제보자2] 수만삼천 년 살아가난 사름 변혜분 거주게.

[제보자1] 사름이 만약에 우리민 지금 떠낭으네 흐끔 살다 보민 막 늙엉 죽을 때 웨불곡. 또 흐썰 시민 아이 웨곡 남자 웨곡 여자 웨 불곡 혜 불민 못 잡주게.

[조사자] 그게 수만이양.

[제보자1] 잡으려 뎅긴 건 소만이가 아니.

[제보자2] 잡으려 뎅긴 건 저승사자지게.

[제보자1] 잡으려 뎅긴 건 저승사자라고 까마귀 저승사자고. 그 소만이가 숫 짖는 걸 봐네

소만이가 난 지금 소만 사천 년을 살아도 숫 씻엉 힌덴 말은 처음 듣구伦.

- 핵심어: 소만이(사만이), 숫(술), 사만삼천 년, 까마귀, 저승사자